

## 총장-뉴스레터 - 69 (2023-11-17)

### 출 13 장 1 절-16 절 (무교절)

“칠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 칠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출애굽기 13:6)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신대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11:1). 바로는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5:2) 여호와의 무서운 면을 알게되었다. 아무런 제한 없이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준다. 이제 드디어 자유에 이르는 길이 열려 '출애굽' (헬라말로 '엑소도스', 라틴말로 '엑소투스')이 시작된다. 출애굽의 시작은 그들이 강제 부역으로 고난 받았던 숙곳에서였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실행하는 이스라엘에게 무교절 규정을 말씀하신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면서 동행하는 많은 이방 출신의 사람들에게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의 출신에 따라 대우가 다르지만 이 규정의 중요한 점은 할례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 거룩히 구별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셨다. '거룩히 구별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넘겨드림을 뜻한다 (이는 내 것이니라. 22:29). '거룩히 구별하여'로 번역된 '카데쉬'는 '카다쉬'에서 유래한 말이다. '카다쉬'는 '일상적인 것과 구별되다'는 의미를 가진다. '~를 거룩한 상태로 두라', '성별하여 봉헌하라'는 뜻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다.

####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

무교절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에 대한 기억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 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 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8 절). 그렇지만 이 절기가 수확의 기간인 듯하고 또 땅에 대해 강조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5 절), 땅과 땅의 소산을 주신 분에게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근본 구원행위를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 초태생을 돌려드림

본래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생물이라면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이다 (창 2:7). 하나님께 초태생 (처음 난 것)을 돌려드림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인정한다. 가축은 희생제물로 정해지거나 희생제물로서 알맞지 않을 경우 (나귀)에는 다른 짐승으로 대속했다. 사람 초태생의

경우에도 대속제물을 바친다 (민 18:16 에서는 돈으로 속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별된 레위인들도 넓은 의미에서 대속제물로 간주된다 (민 3:11-13). 필자도 장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초태생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분명히하고 특별히 초태생들이 마지막 재앙 중에서도 보존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설명한다.

### **생각하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초태생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모든 초태생들, 곧 장자들은 그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소유권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인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며 특권이어야 할 것이다.